

종교 저작에 대한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과 범위 탐색*

Exploring the Revision Direction and Scope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for Religious Works

노 지 현 (Jee-Hyun Rh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KCR의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 |
| II. 종교 저작의 접근점 규칙 비교 | V. 결론 |
| III. 종교 저작의 접근점 적용 사례 | |

요약: 한국목록규칙(KCR)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IFLA LRM 개념모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2 이후에 접근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국내의 경우,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토대로 하여, (1)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인 RDA와 NCR에 수록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2)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종교 저작의 경우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KCR 개정과정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안하였다.

주제어: 한국목록규칙, 접근점, 전거형 접근점, 종교저작, 종교 경전, 전거, 통일표제, 우선표제, 서지기술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KCR) is in progress in order to conform IFLA LRM conceptual model and to strengthen its internal stability. Religious works, along with musical works and legal works, have been treated as special and important in cataloging rules. This trend continues in the new cataloging rules that seek a bibliographic model that interconnects related materials. However since KCR2(1966), there are no rules for access points or specific rules on religious work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d (1) the contents of religious works in the recently revised cataloging rules, (2) the access points and their functions for religious works implemented in online catalogs and authority system, and finally (3) the direction and scope of KCR revi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ules for preferred title and authorized access points for various religious works in KCR. In conclusion, some issues for further discussion were summarized.

KEYWORDS: Korean Cataloging Rules, KCR, RDA, Access Point, Authorized Access Point, Religious Works, Authority, Uniform Title, Preferred Title, Description

* 이 논문은 202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 ISNI 0000 0004 6484 8385)

• 논문접수: 2021년 11월 30일 • 초심사: 2021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153-177,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153>

I. 서론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서지정보의 논리적 구조와 체계는 1998년에 FRBR 개념모형이 발표된 이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09년 FRAD, 2010년 FRSAD이 최종 발표되면서 완성된 FR 개념모형 시리즈는 2017년에 IFLA LRM(Library Reference Model)으로 통합되어 명실상부하게 현재 혹은 미래의 목록규칙이나 서지정보시스템이 지향하는 준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모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개체, 속성,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목록규칙으로 RDA가 이미 국제적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 시맨틱 웹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서지 프레임워크로서 BIBFRAME의 실행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최상위 수준의 개념모형에서부터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목록규칙과 데이터 모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목록규칙이다. 목록규칙은 실질적인 서지모형을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유형과 내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FRBR이나 LRM 개념모형에서 정의한 개체와 속성, 관계는 목록규칙에 그대로 반영되며, 목록규칙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개념모형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 KCR4)은 2003년에 발표된 구현형 중심의 목록규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KCR4를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한 개념모형에 부합되도록 확장하면서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전거나 접근점을 규정하지 않은 KCR4의 한계를 재검토하고 동시에 우리의 고유한 언어관습과 문화, 목록 전통을 새로운 목록규칙에 담아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목록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KCR4의 개정 방향(김정현, 2013; 도태현, 2015; 이미화, 2012)에 관한 논의를 필두로 하여 전거형 접근점(이미화, 2016; 이미화, 노지현, 2016), 저작과 표현형 접근점(도태현, 2012; 이미화, 2016), 개인 및 가계의 기술과 접근점(노지현, 2016a; 안서현, 이창수, 2014; 이창수, 2015), 음악 저작의 접근점(이미화, 2018)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더해, KCR4 개정판의 전체 구성 및 접근점 관련 규칙의 개편 방향에서부터 저작, 표현형, 개인, 단체, 구현형의 표제와 책임표시 및 발행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이 2013년부터 거의 매해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종교 저작’(religious works)이다. 종교 저작은 음악작품이나 법률 저작과 함께 전통적인 목록규칙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져 온 저작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조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KCR 수정판(이하 KCR2) 이후로 접근점에 관한 내용이 목록규칙에서 사라진 국내의 경우, 일반 저작과 구분하여 종교 저작에 관한 기술과 접근점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는지, 둔다면 어떠한 내용과 범위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새로운 서지모형의 수용을 위해 최근 개정을 완료한 목록규칙에서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2)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 저작에 적용된 접근점과 그 기능을 검토한 다음, (3) 종교 저작에 대한 KCR4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조사(목록규칙 포함)와 사례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목록규칙 중에서 RDA는 구성과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어 『RDA Toolkit - 2021년 7월 15일 release』와 『RDA original Toolkit』(2017)을 동시에 참고하였으며, 『일본목록규칙 2018년판』(이하 NCR)은 웹(<https://www.jla.or.jp/mokuroku/ncr2018>)에 공개된 규칙 전문을 참고하였다. 참조사례는 미국의회도서관(이하 LC)과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이하 NDL)을 분석하되, VIAF와 사례 도서관의 전거시스템 및 온라인목록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교 저작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종교 저작에 관한 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자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발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II. 종교 저작의 접근점 규칙 비교

1. 종교 저작의 접근점

종교 저작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판이나 버전, 다양한 언어와 표제로 발간되기 때문에 검색이나 식별을 위해 일관된 접근점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목록규칙에서도 음악작품, 법률 저작과 함께 종교 경전(sacred scripture)을 별도로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AACR2R을 적용하여 종교 경전과 신앙고백 등에 대한 통일표제로 기술한 예시는 <표 1>과 같다. 우리의 목록규칙에서도 기본기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KCR2(1966)에서 종교 경전을 ① 불전, ② 성서, ③ 기타 제종교로 구분하고, '통일표목 + 부표목 + 기타 식별특성'과 같이 통일되게 작성하는 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표 2> 참조). 이와 같은 통일표제는 새로운 서지모형과 RDA에서 전거형 접근점으로 확장되고 재구조화되었다.

〈표 1〉 AACR2R 종교 경전의 통일표제 예시

서지기술 사례	통일표제 적용 예시
The Old Testament : an American translation / by Alexander R. Gordon ... [et al.] ; edited by J.M. Powis Smith - Chicago, Il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7	Bible. O.T. English. Smith, 1927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 commentary by C.F.D. Moule - 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65	Bible. N.T. Mark. English. New English. 1965
A Shortened arrangement of the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 edited by Robert O. Ballou - Philadelphia : A.J. Holman Co., 1964	Bible. English. Revised Standard. Selections, 1964
The Augsburg Confession : a confession of faith presented in Augsburg by certain princes and cities to his imperial majesty Charles V in the year 1530 / translated from the German text	Augsburg Confession. English

※ 출처: Maxwell(1989), 408-409

〈표 2〉 KCR2 종교 경전의 통일표제 예시

구분	표제지 표제 사례	통일표제 적용 예시	비고
불전	大方廣佛華嚴經 / 實叉難陀 譯	불전. 화엄경	불교 경전
	우리말 八萬大藏經 / 大韓佛教青年會 聖典編纂委員會 編	불전. 대장경	불전 經集
	妙法蓮華經 / 信眉 等 國譯	불전. 법화경. 한국어	언어식별
	法句經, 法救集 / 維西難 等譯	불전. 법구경. 위경	불전 위경
성서	성경전서	성서	
	-	성서. 신약. 마태복음	부표목
	-	성서. 신약. 한국어	언어식별
기타 제종교	[유대교 경전]	탈무드	
	[인도 베다 경전]	베다	
	[코란 경전]	코란	
	[유교경전 중 사서오경] 詩經諺解 / 宣祖 命撰	시경	관용명칭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1966), 29-31

주지하다시피 IFLA의 FRBR 개념모형이나 이를 통합한 모형인 LRM, 그리고 이를 목록규칙으로 구체화한 RDA는 개체-관계 모형에 기반한다. 여기서 개체는 이용자의 주된 관심이 되는 대상, 속성은 각 개체에 관한 데이터, 관계는 개체 간 관계로 정의된다. 개체 유형은 IFLA의 FRBR 서지모형에서 정의된 개체가 LRM으로 통합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FRBR의 제2집단 개체가 LRM에서 에이전트 상위 클래스에 2개의 하위 클래스(개인, 집합 에이전트)가 연결된 구조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럼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구분된 개체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을 하위 클래스가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RDA에서는 이러한 LRM 개체를 반영하여 2019년에 에이전트를 개인과 집합으로 구분하고, 집합을 다시 가계와 단체로 세분하는 구조로 변경하였다(〈표 3〉 참조). 서지모형에서 이들 개체는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access point)으로 나타내며,

전거형 접근점은 식별자(identifier)나 IRI(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와 함께 개체를 식별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표 3〉 서지모형과 RDA에 정의된 개체 비교

IFLA FRBR 개념모형		IFLA LRM		RDA		
제1집단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레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 에이전트	개인	가계 단체
제2집단	개인 가계 단체	에이전트	개인 집합	에이전트	개인 집합	가계 단체
제3집단	개념 대상 사건 장소	노멘 장소 시간범위		노멘 장소 시간범위		

RDA에서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개체의 전거형 접근점에 우선표제(preferred title)를 결합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표제는 동일 저작에 속하는 다양한 구현형에 기술된 표제 중 대표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목록규칙에서 정의해 온 통일표제(uniform title)의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개체의 전거형 접근점은 이름 전거파일(name authority file)에서 제어된 전거형식의 이름(우선명, preferred name)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이 다른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의 속성으로 기록된 저작 형식, 일자, 원생산지, 기타 식별특성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면서 구분한다. 저작과 관련된 에이전트 개체가 없거나(예: 무저자 저작)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표제만으로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할 수 있다.

저작을 지적, 예술적으로 실현한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 식별 요소인 내용유형, 일자, 언어, 기타 식별 특성을 부가하여 구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은 저작과 저작의 모든 표현형, 저작을 실현한 표현형의 모든 구현형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구현형에 나타난 표제나 이름에 상관없이 관련 개체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모형을 목록규칙에 반영하여 개정을 완료한 대표적 사례로 RDA와 NCR이 있다. RDA는 종교 저작을 유형별로 세분한 다음 우선표제의 선정과 접근점의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NCR은 종교 저작에 대한 별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KCR4의 개정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종교 저작에 대한 RDA와 NCR 규칙을 비교하여 살펴 보았다.

2.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 규칙 비교

가. RDA¹⁾

(1)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

우선표제는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선정된 표제나 표제 형식으로서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근거가 된다. RDA에서 일반 저작과 구분하여 특별하게 취급하는 종교 저작의 유형은 다음 4가지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 저작은 일반 저작으로 간주하여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RDA 6.23.2.3).

- 경전(sacred scriptures) [RDA 6.23.2.5]
- 외경, 위경 등(apocryphal books) [RDA 6.23.2.6]
- 교리, 신앙고백 등(theological creed, confession of faith, etc.) [RDA 6.23.2.7]
- 전례(예배, 의식) 저작(liturgical works) [RDA 6.23.2.8]

종교 저작에 대한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은 저작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종교 저작의 유형에 따른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 선정 기준

종교 저작의 구분	우선표제의 기준
경전	경전이 속한 종교집단에서 취급하는 참고정보원에 나타나는 표제
외경, 위경 등	데이터 작성기관이 선호하는 언어나 문자로 된 참고정보원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표제
신학 교리, 신앙고백 등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된 잘 정립된 표제(well-established title)
전례 저작	데이터 작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된 잘 정립된 표제

이에 더해, RDA에서는 종교 경전의 특정 부분(part)과 관련된 저작에 대한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RDA 6.23.2.9-6.23.2.19). 여기서 다루는 경전의 종류는 기독교 성서, 유대교의 탈무드, 미슈나, 토세프타, 미드라시, 불교의 팔리 경전과 산스크리트 경전, 브라만 교의 베다, 힌두교의 아란야카,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자이나 아가마,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타, 이슬람교의 코란 등과 같이 포괄적이며, 이들 경전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는 개별 종교에 따라 또는 경전의 부분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경전의 우선표제

1) RDA에서 저작과 표현형의 기록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1) 저작의 우선표제의 선정, (2) 저작의 우선표제와 이형표제의 기록, (3) 저작이나 표현형의 기타 식별 속성의 기록, (4)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5) 저작이나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의 작성.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우선표제의 선정 규정과 이를 토대로 작성하는 전거형 접근점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다음에 부분을 나타내는 세구분(subdivision)을 부가하지만, 특정 표제 형식을 우선표제로 직접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RDA에서 별도의 우선표제 선정 기준이 마련된 경전의 부분과 전례 저작의 유형을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성서의 부분
 - 성서의 구분(신약, 구약)
 - 성서의 각 권
 - 성서 각 권의 집단
 - 성서의 각 권에서 추출한 단일 선집
 - 둘 이상의 완전한 선집
 - 성서의 기타 선집
- 탈무드의 부분
 - 의식, 소책자, 논문
 - 소책자를 독립된 판으로 발행한 저작
 - 탈무드 선집
- 미슈나와 토세프타의 부분
- 미드라쉬
 - 익명의 미드라쉬
 - 미드라쉬 편집물
- 불교경전의 부분
 - 팔리 경전의 부분
 - 산스크리트 경전의 부분
- 베다의 부분
- 아란야카,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의 부분
- 자이나 아가마의 부분
- 아베스타의 부분
- 코란의 부분
 - 코란의 장, 편 등
 - 코란의 구절
- 전례 저작의 유형
 - 초기 카톨릭 전례 저작
 - 최근 카톨릭 전례 저작
 - 유대교 전례 저작
 - 전례 저작의 부분

이 가운데, 성서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만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성서의 부분을 다룬 저작은 해당 경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성서’) 다음에 적절한 표제나 전통적인 목록규칙에서 사용해 온 관용적인 종합표제(예: ‘선집’)를 우선표제의 세구분으로 기록한다. 표제만으로 경전의 부분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경우에는 해당 표제를 우선표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예: 십계명). RDA Toolkit에서는 성서의 각 권(books)과 각 권의 집단(groups of books)에 적용하는 우선표제 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Preferred titles of books of the Bible in English”, https://access.rdatoolkit.org/en-US_topic_dlk_gb2_mhb), 이를 참고하여 구약성서 및 신약성서, 외경의 각 권과 각 권의 집단에 대한 우선표제를 작성할 수 있다.

<표 5> 종교경전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일부)

성서의 구분 기준	우선표제의 기준
성서의 구분	구약(Old Testament) 또는 신약(New Testament)을 우선표제 세구분으로 기록(예: 성서, 신약)
성서의 각 권	데이터생성기관에서 선호하는 표제를 우선표제의 세구분으로 기록(예: 성서, 에스라)
성서 각 권의 집단	데이터생성기관에서 선호하는 표제를 우선표제의 세구분으로 기록(예: 성서, 모세오경)
성서의 각 권에서 추출한 단일 선집	[표제로 식별되는 경우] 데이터생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된 정보원의 표제를 우선표제로 기록(예: 십계명) [표제로만 식별되지 않는 경우] 성서의 각 권의 우선표제 세구분으로 로마자로 된 장과 아라비아 숫자로 된 절을 기록(예: 성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둘 이상의 선집	선집의 분리하여 각각의 우선표제를 기록
성서의 기타 선집	우선표제 다음에 ‘선집’을 기록(예: 성서, 창세기, 선집)

(2)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우선표제는 에이전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과 함께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우선표제로 선정된 표제와 다르게 알려져 있는 표제나 표제 형식은 이형표제로 간주되며, 이형표제는 저작 및 표현형의 이형 접근점의 기본요소로 활용된다. 앞서 살펴본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에 기초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되,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규칙으로 RDA에서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다루고 있다. 이외의 종교 저작에 대해서는 일반 지침을 적용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RDA 6.30.1.1).

- 경전
- 교리, 신앙고백 등
- 전례 저작

먼저, 개별 종교에서 경전으로 통용되는 저작은 저작의 우선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종교 저작이 속한 종교단체의 참고정보원에서 경전으로 통용되는 저작을 한 개인의 저작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 경전의 성구집은 성구를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전거형 접근점으로 기록한다. 이와 관련된 구현형의 예시와 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는 <표 6>과 같다.

<표 6> 종교 경전의 전거형 접근점 예시

구분	표제지 표제 예시	전거형 접근점
경전으로 통용되는 저작	al-Qurʾān al-karīm	Qurʾan [코란]
한 개인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경전	Introduction to Scientology Ethics / L. Ron Hubbard	Hubbard, L. Ron (La Fayette Ron), 1911-1986. Introduction to Scientology Ethics
경전의 성구집	The life of Our Lord / compiled from the Gospels of the four Evangelists and presented in the very words of the Scriptures as one continuous narrative by Reginald G. Ponsonby	Bible. Gospels

교리, 신앙고백록 등은 우선표제로만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표 7> 참조).

<표 7> 교리, 신앙고백록 등의 전거형 접근점 예시

표제지 표제 예시	전거형 접근점
I believe : the Nicene Creed / illustrated by Pauline Baynes	Nicene Creed
Confession of the faith of a number of princes and towns, is responsible for a sacred May act held at the Reichstag in Augsburg	Augsburg Confession

전례 저작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다. 먼저, ① 공식적으로 허가되거나 전통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의식 텍스트, ② 명시된 시간에 바쳐져야 하는 의무 기도용 도서(예배일과, 성무일과 등), ③ 종교의식 수행을 위한 종교력이나 매뉴얼, ④ 예배용 경전 낭송자료, ⑤ 기도서 등에 대해서는 “저작이 속한 교회나 종파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전례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구성한다. 그러나 개인기도용으로 발행된 저작이나 찬송가집,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예배순서안, 비공식적 매뉴얼, 예배 프로그램, 경전의 내용이 없는 성구집 등은 종교 저작이 아닌 일반 저작의 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유대교의 전례 저작은 예외적으로 저작의 우선표제로만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전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예시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전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예시

표제지 표제 예시	전거형 접근점
The book of common prayer, and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other rites and ceremonies of the church, according to the use of the Church of England	Church of England. Book of common prayer
The restored Holy Week liturgy : practical arrangement of the prescribed music for the average church choir / by Carlo Rossini	Catholic Church. The restored Holy Week liturgy
Hallel = הלל: song of praise and thanksgiving : halachah, history, hashkafah, and commentary / by Moshe Bamberger	Hallel [유대교 전례 저작]

한편,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표현형의 일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현형에 추가하는 요소는 밑줄로 표시함).

Bible. English

Bible. Corinthians. English. Authorized

Bible. Gospels. English. Revised Standard. 1975

나. NCR

NCR은 음악작품과 법률 저작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편성하였지만, 종교 저작에 대한 규칙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일반 저작의 우선표제 선정이나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에 종교 저작을 사례나 예외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을 NCR 전체에서 추출한 결과, 종교 저작을 언급한 규정은 경전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와 경전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에 관한 다음 내용이 유일하였다. 해당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표 9>와 같다.

〈표 9〉 NCR에서 종교 저작 관련 규정(전체)

규정 항목	규정 내용
우선표제의 선정	경전의 부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는 경전 전체의 우선표제와 부분의 우선표제를 조합하여 구성하다(예: “성서. 신약”). 만일 경전의 부분이 약칭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약칭을 우선표제로 선정한다. 다만, 불교 경전의 우선표제는 부분의 우선표제만 기록한다(예: “법화경”).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경전의 부분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은 경전 전체의 우선표제와 부분의 우선표제를 조합하여 작성한다(예: “성서. 신약”). 다만, 불교 경전의 경우에는 부분의 우선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예: “법화경”).

〈표 9〉의 내용을 볼 때, 경전 전체를 나타내는 우선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종교 경전의 범위나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RDA와 달리, 불교 경전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예: 불전)를 생략하도록 한 규정이 NCR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9〉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종교 저작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고 예시 또한 빈약해서 NCR만으로는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Ⅲ. 종교 저작의 접근점 적용 사례

1. LC(미의회도서관)

앞서 살펴본 RDA가 실제 레코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으며, 그러한 접근점이 현실의 서지모형에 구현되었을 때 예측되는 유용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참조사례로 LC를 조사하였다. LC의 사례는 모두 3가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저작과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VIAF (<http://viaf.org>)를 활용하였다. VIAF는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구축한 전거형 접근점을 클러스터한 집합체에 해당하므로 LC 사례만 추출하기 위해 대상을 “LC(NACO)”로 제한하여 저작과 표현형 레코드를 검색하였다. 둘째, LC에서 구축한 전거형 접근점과 이형 접근점은 LC Authorities (<http://authorities.loc.gov>)에서 확인하였다. 셋째, 전거형 접근점이 적용된 종교 저작의 구현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LC catalog(<https://catalog.loc.gov/>)을 활용하였다. 종교 저작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기독교 성서 중 『고린도서(Corinthians)』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먼저, VIAF를 통해 LC에서 구축한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Bible. Corinthians”와 관련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이 14건,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이 10건 검색되었다.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경우 RDA 규정에 따라 “Bible. Corinthians”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을

나타내는 용어가 부가되어 있었는데, “Bible. Corinthians, 1st”(고린도전서) “Bible. Corinthians, 1st, XV”(고린도전서, 제15장), “Bible. Corinthians, 1st, XV, 58”(고린도전서, 제15장, 58절)과 같이 각 개체를 상호배타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의 사례 중 ①~⑭는 경전이나 경전의 부분이 아닌 개인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써 RDA 규정에 따라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우선표제>가 적용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에 해당한다.

표현형은 14개의 저작 전거형 접근점 중 저작 ①에 대한 표현형이 총 8건(<표 10>의 ㉠), 저작 ②에 대한 표현형이 총 2건(㉡)이 검색되었다. <표 10>에서 보듯이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은 저작 전거형 접근점에 언어와 기타 식별특성, 일자 등을 부가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을 실현한 표현형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관련 저작으로 연결하는 단서로도 활용된다.

<표 10> VIAF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사례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① Bible. Corinthians.	㉠ Bible. Corinthians. Cherokee Bible. Corinthians. Creek Bible. Corinthians. English. Ellicott Bible. Corinthians. English. Geneva. 2020 Bible. Corinthians. English. King. 2013 Bible. Corinthians. English. Wommack. 1996 Bible. Corinthians. German. Luther Bible. Corinthians. Syriac. Peshitta (Kiraz). 2013
② Bible. Corinthians, 1st	
③ Bible. Corinthians, 2nd	
④ Bible. Corinthians, 1st, I-IV	
⑤ Bible. Corinthians, 1st, XI, 2-16	
⑥ Bible. Corinthians, 1st, XI, 17-34	
⑦ Bible. Corinthians, 1st, XII-XIV	
⑧ Bible. Corinthians, 1st, XIII, 12	
⑨ Bible. Corinthians, 1st, XV	
⑩ Bible. Corinthians, 1st, XV, 58	
⑪ Erasmus, Desiderius, -1536. Paraphrasis in omnes epistolas Apostolicas	㉡ Bible. Corinthians, 1st. Mohawk Bible. Corinthians, 1st. Mohawk. 1834
⑫ Erasmus, Desiderius, -1536. Apologia de loco 'Omnes quidem resurgemus'	
⑬ Valleskey, David J. 2 Corinthians	
⑭ Toppe, Carleton. 1 Corinthians	

다음으로, LC 자체에서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LC Authorities에서 '표제 전거'로 동일한 키워드인 “Bible. Corinthians”을 검색한 결과 총 114건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전거형 접근점(authorized heading)이 20건, 이형 접근점에 해당하는 참조(references)가 2건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제어된 형태의 전거형 접근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어되지 않은 접근점은 주로 단 하나의 서지레코드에 적용된 것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임의로 확장한 것이거나 구(舊) 표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LC Authorities에서 검색된 전거형 접근점 20건은 앞서 VIAF의 저작 레코드 ①~⑩ 및 표현형 10개 레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접근점의 유형(즉, 저작과 표현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접근점과

함께 해당 접근점이 적용된 서지레코드의 수를 표시해 주고 있었으나, 접근점을 이용하여 서지레코드로의 직접적인 이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LC Authorities의 접근점 검색 사례(일부)

레코드 유형	접근점	서지레코드 수
전거형 접근점	Bible. Corinthians	2
전거 & 참조 (비제어형)	Bible. Corinthians, 1st	3
(비제어형)	Bible. Corinthians, 1st, English, 1841	1
(비제어형)	Bible. Corinthians, 1st, English, 1857	1
(비제어형)	Bible. Corinthians, 1st, English, Authorized, 1971	1
(비제어형)	Bible. Corinthians, 1st, English, Black, 1993	1
...
참조	Bible. Corinthians, English, MGB, 2020	0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으로 LC catalog에서 구현형 레코드를 검색하여 여기에 반영된 전거형 접근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LC catalog에서 'uniform title'로 검색항목을 제한하여 앞서 VIAF에서 확인한 전거형 접근점의 일부를 이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개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우선표제'로 구성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은 '저자 and 우선표제'로 검색). 검색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이 나타났으며, 모든 전거형 접근점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LC catalog의 검색결과는 앞서 살펴본 LC Authorities에서 제공한 서지레코드의 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LC catalog의 통일표제 검색 사례(일부)

'통일표제' 검색어	검색결과	접근점 유형
Bible. Corinthians	1,183	저작
Bible. Corinthians, 1st	681	
Bible. Corinthians, 2nd	316	
Bible. Corinthians, 1st, I-IV	19	
Bible. Corinthians, 1st, XV	58	
Bible. Corinthians, 1st, XV, 58	2	
Erasmus, Desiderius, -1536, [저자] + Paraphrasis in omnes epistolas Apostolicas [우선표제]	3	
Bible. Corinthians, Cherokee	1	표현형
Bible. Corinthians, 1st, Mohawk	2	

이렇듯 접근점은 다양한 언어와 표제로 된 구현형을 목록 상에 집중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관련 자료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 리스트는 〈표 12〉의 접근점 중 "Bible. Corinthians"을 접근점으로 가지는 구현형 사례의 일부이다. 리스트에서도 나타나듯이, 표제 등에 'bible' 또는 'Corinthians'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구현형도 이처럼 접근점을 이용하면 망라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LC catalog에서는 접근점을 이용한 검색기능이나 이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접근점을 이용하여 검색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Bible, Corinthians” 접근점의 검색결과 중 일부〉

1 & 2 Corinthians : the modernized Geneva Bible 1599. (Moscow, Idaho : Canon Press, 2020.)

The Bible knowledge word study : Acts-Ephesians / editor, Darrell L. Bock. (Colorado Springs, Colo. : Victor, c2006.)

The greatest is love : St. Paul's wonderful words about faith, hope, and love / illustrated by Lois Jackson. (Kansas City, Mo. : [Hallmark, 1975])

Korinther / Peter Arzt-Grabner ... [et al.] : mit zwei Beiträgen von Michael Ernst, unter Mitarbeit von Günther Schwab und Andreas Bammer.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c2006.)

2. NDL(일본국립국회도서관)

NDL에서 구축한 접근점은 Web NDL Authorities (<https://id.ndl.go.jp/auth/ndla/>)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VIAF에서도 NDL에서 구축한 개인, 가계, 단체, 지명, 통일표제, 주제(NDL SH)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NDL Authorities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NDL Online (<https://www.ndl.go.jp/en/index.html>)에서 서지레코드에 반영된 접근점을 확인해 보고자 시도하였으나 NDL Online에서는 접근점(우선표제)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이 제공되지 않았고, 대신에 NDL Authorities에서 각 접근점이 사용된 서지레코드를 바로 연결해 주고 있어 NDL Authorities만으로도 접근점의 구축 및 활용 방법을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NDL Authorities에서는 다양한 종교 저작이나 경전의 부분에 해당하는 예시를 찾기가 어려워 부득이 기독교 성서의 ‘구약’과 ‘신약’으로만 구분하여 검색한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旧約’ 접근점 : 38건, ‘新約’ 접근점 : 21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NCR은 종교 저작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경전 전체를 나타내는 우선표제 다음에 경전의 부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를 전거형 접근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불교 경전은 경전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만 기록). 그러나 〈표 13〉에서 보듯이 NDL에서 구축한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는 성서의 부분에 해당하는 각 권의 표제가 바로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コリント人への手紙’(고린도서)가 전거형 접근점으로, 그리고 ‘聖書--新約--コリント人への手紙’(성서-신약-고린도서)와 같은 형식이 이형 접근점으로 모든 종교 저작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LC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세구분이나 형식이 추가된 전거형 접근점(예: ‘고린도전서’ 또는 ‘고린도전서, 제1장, 15절’)의 사례를 NDL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NCR 개정이 2018년에 완료되었고 NDL 접근점이 그 이전에 구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NDL에서 전거형 접근점은 서지레코드와 전자레코드를 연결하는 노드로 직접 활용되고 있는데, 전거형 접근점이 사용된 ‘표제’, ‘저자’,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NDL Online의 서지레코드와 바로 연결이 된다. 가령, 접근점 ‘創世記’를 이용하여 저작 ‘創世記’와 創世記를 주제로 한 다른 저작을 곧바로 검색할 수 있다. LC의 경우 LC Authorities와 LC 온라인목록이 상호 연동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NDL 사례가 접근점을 이용한 검색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접근점 자체만으로 개체를 식별하기에는 LC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3〉 NDL Authorities의 접근점 검색 사례(일부)

구분	전거형 접근점	이형 접근점
旧約	エズラ記	Ezra記 聖書--旧約--エズラ記
	モーセ五書	モーセの五書 聖書--旧約--モーセ五書 Pentateuch
	創世記	聖書--旧約--創世記
新約	コリント人への手紙	コリントの信徒への手紙 コリント書 聖書--新約--コリント人への手紙
	使徒行伝	使徒言行録 聖書--新約--使徒行伝
	マタイによる福音書	Matthewによる福音書 マタイ福音書 聖書--新約--マタイによる福音書 マトフェイに因る聖福音

IV. KCR의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

KCR4에서는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접근점의 집중은 대표 형식 대신에 가상의 표준전거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거에서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2003년 이후로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접근점과 전거는 개별 도서관의 방식대로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KCR4 개정 논의에서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성을 고려”하고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접근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저작의 집중을 위해” 기존 통일표제의 개념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김정현, 2013; 이미화, 노지현, 2016). 이에 따라 저작, 표현형, 개인, 가계, 단체 개체의 기술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방안이 검토되었고, 이 가운데 저작은 다시 다국어 저작(노지현, 2016b)과 음악 저작(이미화, 2018)으로 세분하여 추가 논의도 진행되었다.

종교 저작의 경우 이를 위한 규칙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RDA는 종교 저작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만, NCR은 일반 저작으로 취급하며 사례의 일부로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CR의 종교 저작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의 수용 검토

먼저, KCR 기술규칙에서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1) 종교 저작과 유사한 저작 유형으로 취급되는 음악 저작에 관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종교 저작에 대입해 보고, (2) RDA에서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 일반 저작에 적용하는 규칙과 비교하여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즉, 별도의 규정으로 두어야 할 만큼 충분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3) 국내의 자료발간 현황을 토대로 종교 저작의 식별을 위한 규칙에 포함될 내용을 예측하는 순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KCR 개정에서 음악 저작에 적용할 규칙의 범위와 내용이 어느 정도 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교 저작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았다. 음악 저작에 대한 규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아래의 인용문을 참조할 때, 종교 저작도 음악 저작과 마찬가지로 동일 저작이 다양한 버전과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고 동일 저작에 해당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작의 집중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음악 저작은 음악 저작을 식별하기 위해 연주수단, 음악저작의 번호표시, 조성 등과 같은 특수한 속성을 가지지만 종교 저작의 경우 그러한 차별화된 속성보다는 종교 저작을 나타내는 구성요소와 기술방법이 특이하고 다양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종교 저작을 집중하거나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악 저작은 지속적으로 연주, 변주 및 개작이 되며, 다양한 표제로 발행되고 있어 자료의 집중이 용이하지 않다. ... 개별적인 자료 식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검색할 수 있는 저작의 집중이 더욱 요구된다. (이미화, 2018: 148)

다음으로, RDA를 통해 종교 저작에 대한 규칙의 구성과 내용이 일반 저작에 적용하는 것과 얼마나 상이한지 검토하였다. <표 14>는 RDA에서 일반 저작과 종교 저작에 적용하는 규칙을 비교한 것이다. 종교 저작에 적용하는 규칙에서는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와 이형태제의 선정 기준을 특별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외는 종교 저작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표현형의 일자나 기타 식별특성(특정 판, 번역자명, 필사본의 명칭이나 보관소의 명칭 등)의 기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이나 표현형의 속성(저작의 형식, 일자, 원생산지 등)은 모두 일반 저작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전거형 접근점 규칙에서는 일반 저작과 동일한 수준으로 종교 저작을 다루면서, 필사본이나 복제 필사본에 대한 전거형 접근점이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만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RDA는 종교 저작을 위한 규칙의 구성 자체는 일반 저작과 다르지 않지만, 다종교를 대등한 관점에서 다루면서 특수하게 다룬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을 일반 저작과 구분하여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KCR에서도 일반 저작과 구분해서 종교 저작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별도로 편성하되, 특히 우선표제의 선정과 기록에 관한 규칙을 관련 예시와 함께 다양한 유형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RDA에서 종교 저작 관련 규칙의 구성

구분	일반 저작의 적용 규칙	종교 저작의 적용 규칙
속성	저작의 표제 저작의 형식 저작의 일자 저작의 원생산지 저작의 기타 식별특성 저작의 연혁 저작의 식별자 내용유형 표현형의 일자 표현형의 언어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표현형의 식별자	종교 저작의 표제 종교 저작의 표현형의 일자 종교 저작의 표현형의 기타 식별특성
전거형 접근점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저작 및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	종교 저작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종교 저작의 부분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종교 저작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종교 저작의 필사본 및 복제 필사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종교 저작 및 표현형을 나타내는 이형 접근점

마지막으로,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 적용될 자료의 범위를 이용하여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RDA의 경우 전 세계의 종교를 포괄하고자 하였고, 개별 종교나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규칙 또한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대한 편이다. 그러나 국내의

상황은 이와 다를 수 있어 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종교의 유형별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교 저작의 범위와 규모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았다. 언어나 매체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종교 저작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KDC 분류기호를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탐색하였다.²⁾

〈표 15〉 종교 저작의 유형별 국내 생산·유통 현황

	경전	외경 및 위경	교리	전례 저작
불교	6,945	(25)	2,061	1,063
기독교	41,782	(97)	27,731	8,258
도교	95	-	57	5
천도교	253	-	155	8
힌두교	9	-	13	6
이슬람교	92	-	21	4
조로아스터교	11	-	-	-
증산도	0	-	-	-
대순진리교	0	-	-	-

〈표 15〉의 결과를 참조할 때, KCR 개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종교 저작의 범위는 불교와 기독교 저작으로 좁혀지나,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에서 고려할 종교 저작의 유형은 경전뿐 아니라 교리, 전례 저작(종교의식) 등으로 확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KCR2에서 종교 경전에 포함했던 ‘유교경전 중 사서오경’도 종교 저작으로 간주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종교 저작과 관련된 규칙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제안하면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다.

2. 규칙의 주요 내용과 후속 논의사항

종교 저작에 대한 KCR 개정 방향은 ① 우선표제의 선정과 기록, ②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에 앞서, 본 연구에서 표기할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의 언어와 문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 예를 들어, KDC6에서 불교경전(불전, 불경, 대장경)은 233, 불교교리는 221, 전례에 해당하는 법회, 의식, 행사 등은 227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해당 저작을 각각 탐색하였다. 다만, KDC6에서 불교 위경(223.63)이나 기독교의 외경 및 위경(233.9) 등은 모두 경전 아래에 세분하고 있어 〈표 15〉의 위경 및 외경에 해당하는 자료는 경전에도 포함된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위경 및 외경은 ()안에 표시하였다. 한편, 〈표 15〉의 개별 종교는 KDC6 분류기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종교로만 한정하였다.

ICP(2016)에서는 '원문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저작의 구현형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하고, 원문의 언어나 문자가 해당 목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목록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나 문자 중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 기재된 형식을 근거로 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RDA에서 경전은 '경전이 속한 종교집단에서 취급하는 참고정보원에 나타나 있는 표제'를, 외경, 교리, 전례저작 등은 '데이터생성기관에서 선호하는 언어나 문자로 된 표제'를 우선표제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의 우선표제는 'Qur'an'로, 나머지 'Koran', 'Quran', 'Coran', 'Xuaan' 등은 이형표제로 기록한다.

KCR 개정에서도 ICP와 RDA를 참고하여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에 적용할 언어나 문자로 '원어로 된 언어나 문자'를 모든 개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아랍어와 같은 비로마자지는 로마자로 번지된 것을 사용하며, 우선표제가 한글이 아닌 경우 이용자를 위해 한글 표제를 이형에 반드시 기술하도록 권고사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교 저작도 이러한 원칙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로 우선표제나 전거형 접근점을 표기할 경우 종교 저작의 특성상 식별이 어려울 수 있고 원어가 로마자가 아닌 경우 로마자 번지를 임의로 결정하기도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한글' 표기를 적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반 저작과 달리 경전과 같은 종교 저작은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다양한 변형이나 한글 관용형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고, 구현형이나 참고정보원에서 널리 알려진 표제 또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작이 구현된 자원(또는 입수된 첫 번째 구현형)'으로부터 원어 표제를 기록하는 일반 원칙을 종교 저작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나아가, RDA에서와 같이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를 '잘 정립된 표제'나 '저작을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용어' 등으로 규정하게 될 경우 이를 어떻게 표기할지도 연관 지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를 기록하는 언어와 문자는 후속 논의로 남겨두고,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구성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가. 우선표제의 선정과 기록

주지하다시피 KCR2에서는 종교 저작 중 '경전'만을 다루었고, 경전의 통일표제로 한글 형식인 "불전", "성서", "탈무드", "미쉬나", "토세프타", "베다", "코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KCR4 개정에서는 이러한 기존 규정을 경전의 우선표제로 수용하되, 앞서 언급했던 교리나 전례 저작 등에 대한 우선표제의 규정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DA 예시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교 저작의 사례를 참고할 때 종교 저작의 규칙에 수록해야 할 우선표제의 적용대상과 기술예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들 우선표제는 저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의 우선표제로 반드시 기록한다. 그러나 경전과 달리, 교리, 교의, 신앙고백, 전례 저작 등은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이나 적용 범위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 RDA에서도 이들에 대해 '확립된

표제'를 우선표제로 선정한다는 것 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례 또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CR에 종교 저작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록한다면, 종교 저작의 유형 별로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과 관련 예시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 예시]

- 경전: 불전; 성서 등
- 교리/교의/신앙고백: 불교교리; 교리문답; 기독교 교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등
- 전례 저작: 찬문; 수계; 다비; 축원; 찬불가; 찬송가; 기도서; 예배; 미사 등
- ※ 사서오경을 종교 저작에 포함할 경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등

〈표 16〉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 적용 예시

서지기술 예시	우선표제(안)
독백록 / 저자: 어거스틴; 김광채 역 구원의 도리 / 김민수 저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공과 / 주용현 편저	교리문답
(어르신 용) 성 요셉께 드리는 기도 : 성 요셉 성월 / 이수방 내가 응답하리라 / 케빈 제다이 지음; 임은목 옮김 생활 속의 기도 / 엮은이: 성바오로 편집부	기도서
진리와 자유의 길 / 법정 지음 삼보와 삼학 / 원산스님 지음 가르침을 배우다: 빠알리 성전을 통해 본 불교 기초 교리 / 비구 일창 담마간다	불교교리

다음으로, 경전의 각 권, 각 권의 표제, 동일 표제에 적용된 순차표시 등과 같이 종교 저작의 일부를 다른 저작을 우선표제에 명시하기 위한 기술방법도 검토하여 KCR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RDA에서는 경전의 각 권 등을 경전의 우선표제 다음에 세구분으로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비록 설명이나 예시가 빈약하기는 하였지만 KCR2에서도 경전의 각 부 또는 경전의 부분에 대한 '관용명칭'을 통일표제의 부표목나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특히, RDA에서는 성서의 각 권과 각 권의 집단에 적용할 '우선표제 리스트'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KCR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불교 경전까지 확대하여 우선표제 리스트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해 볼 만하다. RDA의 성서 관련 규정과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교 저작의 사례, 그리고 기존 KCR4 기술방법을 참고하여 종교 경전의 우선표제에 수록할 내용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전의 부분에 대한 우선표제]

해당되는 경우, 경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 다음에 우선표제의 세구분(subdivision)을 기록한다. 우선표제와 세구분은 온점(.)으로 구분하며, 둘 이상의 세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

한다. 우선표제의 세구분에 기록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경전의 각 권 또는 각 부를 나타내는 표제를 기록한다. 불교 경전에 대해서는 대장경(三藏 (經藏, 律藏, 論藏) 포함),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 불교(밀교) 경전의 각 부 명칭을 기록한다(예: 불전, 법화경). 성서는 ‘구약(Old Testament)’ 또는 ‘신약(New Testament)’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이어 각 권을 나타내는 표제가 있는 경우 함정역성서 (authorized version)의 간략 인용 형식을 기록한다(예: 성서, 구약, 창세기).
- (2) 동일 표제 아래 순차표시가 있는 경우 서수로 숫자를 기록한다. 서수는 아라비아 숫자에 서수를 나타내는 문자(예: 제, 第, -st, -th 등)를 숫자 앞 또는 뒤에 적절히 덧붙여서 기록한다(예: 성서, 고린도서, 전서).
- (3) 해당 권의 표제 다음에 장과 절의 번호를 기록한다(예: 성서, 고린도서, 전서, 제13장).
- (4) 특정 표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전을 나타내는 우선표제 다음에 관용적인 종합표제인 ‘선집(Selections)’을 기록한다(예: 성서, 선집).
- (5) 각 권 또는 각 부의 표제를 가진 경전을 집합적으로 수록한 저작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표제를 기록한다(예: 화엄경·대반야경·법화경 등 → 오부대승경,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 등 → 모세오경)

〈표 17〉 우선표제의 세구분 적용 예시

서지기술 예시	우선표제(안)
法華經菩薩思想論 / 久保繼成 (한글) 법화경 = The lotus of the true law / 현중 역해 妙法蓮華經 / 무정스님 감수	불전, 법화경
(성경전서) 고린도전·후서 = Paul's first & second letter to the Corinthians : 개역한글판(장, 절 생략) / 지은이: 갓-브리디드	성서, 고린도서
코린토 1서 / 레이먼드 F. 콜린스 지음 : 조장윤 옮김	성서, 고린도서, 전서
고린도전서 14장 회고적 읽기와 성령의 은사 : 방언과 통역 & 예언과 분별 / 김성중 지음	성서, 고린도서, 전서, 제14장

나. 저작 및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

RDA에서는 종교 저작 중 각 종교집단에서 경전으로 통용되는 저작이나 경전의 부분, 교리, 신앙고백서, 성구집 등에 대해 우선표제만으로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의 책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이들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에 개인이나 집합 등 에이전트 개체의 우선명(preferred name)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사례처럼 경전이나 경전의 부분 자체를 다루는 저작은 저자의 역할(‘저’, ‘역’, ‘편’, ‘편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우선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종교 저작이 속한 종교단체를 다루는 참고정보원에서 경전으로 통용되는 저작을 한 개인의 저작으로 여기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예: 문선명의 『원리해설』(통일교 경전)). 또한, 공식적인 전례 저작의 경우 특정 종교나 종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작이 속한 종교집단이나 종파를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과 우선표제를 조합하여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KCR 개정에서도 이러한 RDA 규정을 참고하여 종교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표 18〉 저작 전거형 접근점의 적용 예시

서지기술 예시	우선표제(안)
고린도전서 / 김용욱 저 고린도전서 / 제이 토머스 지음 ; 김장복 옮김	성서. 고린도서, 전서
법화현론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편 묘법연화경 : 독송용 묘법연화경과 영험록 / 한역: 구마라집 ; 편역: 각근사	불경. 법화경

한편, 동일 저작에 속하는 상이한 표현형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표현형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이를 위해 저작 전거형 접근점에 표현형을 나타내는 속성을 추가한다. 표현형의 속성은 언어, 판(version), 일자 등이며, 이들 중 하나 이상을 저작 전거형 접근점에 추가한다. 해당 저작에 하나 이상의 언어로 된 표현형이 포함되어 있거나 하나 이상의 저작 버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을 각각 작성한다. 표현형의 전거형 접근점에 추가할 요소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언어: 한글 형식으로 표현형의 언어를 기록한다. 통제어휘집으로부터 적절한 용어를 선택할 수 있다.
- 판: 판의 명칭을 간략형식으로 기록한다. 특정 판이 번역자명으로 식별되는 경우 번역자명의 간략형식을 사용한다. 번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간략형식의 이름을 붙임표로 연결하고(예: Smith-Goodspeed), 셋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번역자의 간략형식 다음에 “등(and others)”을 기록한다.
- 일자: 해당 표현형과 관련된 가장 앞선 구현형의 일자를 기록한다.

[표현형 전거형 접근점의 예시]

성서. 고린도서. 한글
 성서. 고린도서. 한글. 김용욱.
 성서. 고린도서. 한글. 김용욱. 1985

V. 결 론

본 연구는 개체, 속성, 관계에 기반한 서지모형을 반영한 새로운 목록규칙에서 다루어야 할 '종교 저작'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종교 저작은 음악 저작, 법률 저작과 함께 기존 목록규칙에서도 특별하게 다루어져 온 저작 유형에 해당한다. 동일 저작이 상이한 버전이나 표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집중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LA LRM 모형에 맞추어 목록규칙의 개정을 완료한 RDA와 NCR의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을 자세히 분석하고, 참조사례로서 이들 목록규칙을 적용하는 LC와 NDL을 통해 접근점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본 다음, KCR4 개정에 반영할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DA에서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은 다종교를 포괄하면서 종교 저작의 유형별로 우선표제와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NCR은 일반 저작의 사례로 종교 경전의 일부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C와 NDL 검색시스템을 통해서도 RDA와 NCR의 적용 방식은 확인할 수 있었다. 구현 방식이 상이하기는 하였으나, 접근점을 이용한 저작의 집중 기능과 유관 시스템(전거시스템-OPAC) 간의 유기적 연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LC는 접근점 개체 식별을 위한 기술에서, NDL은 접근점을 활용한 검색 기능에서 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되, 본 연구에서는 KCR2에 수록된 종교 저작의 통일표제 규칙을 수용하여 KCR4의 개정 방향을 우선표제의 선정과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KCR 개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 저작에서 다룰 범위를 KCR2와 같이 '경전'에 국한할 것인지, RDA와 같이 교리나 전례 저작 등을 포함한 '종교 저작'으로 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RDA는 종교 저작의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한 후 관련 규칙을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종교 저작 또한 경전 외에 교리나 전례 저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에서 다룰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교 저작의 우선표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 저작은 저작의 특성상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거나 관용형으로 굳어진 경우가 많고, 관련 자료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표제의 선정이 일반 저작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따라서 일반 저작에 적용되는 '원어로 된 표제'나 '첫 번째 구현형에 나타나는 표제' 혹은 RDA에서 제시한 '경전이 속한 종교집단에서 취급하는 참고정보원에서 나타나 있는 표제', '잘 정립된 표제',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 등과 같은 기준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RDA에서도 종교 저작에 대한 영어 우선표제 리스트를 규칙에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 일부에 대한 리스트만

다루고 있어, KCR4 개정에서는 불교 저작까지 포괄하면서 그 유형도 교리나 전례 저작 등으로 확대하여 우선표제의 선정 기준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별 종교에서 생산되는 저작이나 널리 사용되는 이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종교에서 경전이나 교리 등으로 알려진 저작은 우선표제만으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다만, 개인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종교 저작은 '저작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나타내는 전거형 접근점 + 저작의 우선표제'로 전거형 접근점을 작성한다. 종교 저작의 경우, 경전이나 교리를 토대로 개인이 편집하거나 해설한 저작이 다수이므로 어디까지를 개인의 저작으로 볼 것인가가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전거형 접근점의 작성 규칙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 저작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조사례로 살펴본 LC와 NDL에서는 저작 전거형 접근점을 검색시스템에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었지만, 목록규칙에서 제시한 접근점의 기능에 비해 이용자들이 이를 검색에 활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목록규칙에서 다룰 접근점의 작성 방법에 더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도서관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종교 저작에 대한 KCR의 개정 방향과 범위를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된 기초 연구이다. 목록규칙에 반영될 세부 내용은 후속 논의를 통해 세밀하게 결정해 나가야 하는 만큼 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종교 저작에 관한 목록규칙 개정 방향과 내용을 가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 노지현 (2016a). 개인명 전거제어 및 전거형 접근점 작성을 위한 한국목록규칙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01-229.
- 노지현 (2016b). 다국어 저작의 전거형 접근점 형식에 관한 논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123-147.
- 도태현 (2012). RDA의 저작과 표현형의 접근점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27-48.
- 도태현 (2015). 한국목록규칙 4판 개정판의 구성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07-226.

- 안서현, 이창수 (2014). 목록규칙에 있어 개인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235-261.
- 이미화 (2012). 국제목록원칙 2009 제정에 따른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261-280.
- 이미화 (2016). 저작 및 표현형 전거레코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71-94.
- 이미화 (2018). 음악 저작의 전거형접근점 규칙 마련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47-166.
- 이미화, 노지현 (2016).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47-69.
- 이창수 (2015). 목록규칙에 있어 家系의 속성과 관계의 기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27-49.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목록규칙 (수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Maxwell, M. F. (1989). Handbook for AACR2 1988 Revision: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RDA Steering Committee. RDA toolkit. <https://www.rdatoolkit.org/>
- RDA Steering Committee. RDA original toolkit. <https://original.rdatoolkit.org/>
- 日本圖書館協會. 2018. 日本目錄規則 2018年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Available: <https://www.jla.or.jp/committees/mokuroku/ncr2018/tabid/787/Default.aspx>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Seohyeon & Lee, Changsoo (2014). A study on the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person in cataloging rul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3), 235-261.
- Doh, Tae-Hyeon (2012). Study on instructions for access points representing works and expressions in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27-48.
- Doh, Tae-Hyeon (2015). Suggestions for the composition of KCR4 revision. Journal of

-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207-226.
- Japan Library Association (2018). Nippon Cataloging Rules, 2018 ed. Tokyo: Jap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jla.or.jp/committees/mokuroku/ncr2018/tabid/787/Default.aspx>
- Kim, Jeong-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6). *Korean Cataloging Rules*, revise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Changsoo (2015). Describing attributes and relationships of families in catalog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27-49.
- Lee, Mihwa (2012). The study on the directions of KCR4 under the new ICP 200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261-280.
- Lee, Mihwa (2016).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work and expression author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71-94.
- Lee, Mihwa (2018).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in rules for authorized access points of music 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47-166.
- Lee, Mihwa & Rho, Jee-Hyun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authorized access points in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47-69.
- Rho, Jee-Hyun (2016a).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ing rules for personal name authority records and authorized access poi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201-229.
- Rho, Jee-Hyun (2016b). A study on the language and script of authorized access points representing multilingual wor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123-147.

